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동원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가는 '98 오는 '99

한결 같은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득하시길

올해는 송구영신예배 안하기로, 1월 1일 9시 11시에 신년감사예배

1월 3일 첫주일에는 99년 첫 성찬식 및 공동의회

오늘은 1998년도 마지막 주일이다. 이제 1900으로 시작하는 해의 마지막 일년만을 앞두고 되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극심한 세기말적 전조들이 이어졌다. 세계 도처에서 깨어진 평화의 소리들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파멸의 광음들이 계속되었다. 경제적 파산과 질병과 죽음, 태풍과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상상을 넘어서는 고통,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결심한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도록 인도하는 기회들이 되었다. 우리의 지극한 무력함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총의 대비에서 새어나오는 진실된 기쁨

이 우리를 가운데 임하였다.

'가장 좋은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와 성찬식으로 더불어 출발했던 98년도는 조지 폴라, 트럼퍼 폴맨, 피트 앤스 등의 교수진이 인도한 청지기훈련, 6개교 7개팀으로 나아간 단기선교, 44개 지역으로 파송된 농어촌전도, 그리고 헌신적인 수혜복구 지원사업 및 구제사업 등 넘치는 사랑과 은총으로 이어졌다.

이제 계속하여 임하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총과 더불어 우리는 99년도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목목하고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될 것이다.

* 연말 연시 주요행사 *

날짜	12월 27일(주일)	1월 1일(금)	1월 3일(주일)
행사	원로주대, 은퇴 및 근속자 포상(찬양예배시) 특별제직자(찬양예배 후) : 예 - 결산 심의	05:00 신년새벽기도회 09:00 신년예배 1부 11:00 신년예배 2부 : 저녁 금요집회는 없습니다.	1-5부예배시 성찬식 공동의회(찬양예배 후) : 98결산, 99예산 및 회칙개정안 심의

동서울노회 찬양 및 성경고사대회 22일(화)에 은혜중 마쳐

동서울노회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우리 교회에서 거행된 제26회 성경고사 및 찬송경연대회가 지난 22일(화) 갈릴리홀에서 은혜 중에 마쳐졌다. 1부 예배, 2부 성경고사 및 찬송경연대회, 3부 시상식 및 모범어린이 표창 등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1개 교회 40여 명이 그동안 공부하고 연습한 것을 힘껏 겨루었다. 한편 성경고사 대회 및 찬송경연대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성경고사대회
특등 문상생(유년1), 오라과(초1), 1등 김승(초1), 주동진(중2), 허다열(중3), 오현(고2), 허광민(장년), 2등 이영혜(초1), 배성은(초2), 양하은(중1), 김상현(중2), 허예선(중3), 백영숙(장년), 3등 이사무엘(초1), 정혜진(중1), 최강욱(중2).

제1교육위원회 세계 성경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기로

제1교육위원회는 8세부터 16세까지(유년부-중등3부)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세계 성경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 대회는 성경내용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전세계적으로 공모하여 당선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로 초청하여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20년 전에는 한국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응모기간은 99년 3월까지로 제1교육위원회는 적당한 시기를 택해 각 부서별로 이를 위한 자체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 일시:
1999년 1월 3일 찬양예배 후

• 내용:
98년 결산 및 99년 예산
교회 회칙 개정안 심의

1999년 청지기훈련 새 언약의 일꾼으로 무장하자!

1월 13-14일 저녁 7시부터 본당에서

교회는 1999년도를 위해 새로 임명된 교회일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및 복음의 증인으로 구비시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1월 13일과 14일 양일 저녁에 걸쳐 청지기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원에서는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일꾼의 정체성 발견하기,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일꾼의 바른 정신과 태도로 무장하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섬기고 증인으로 살아가기 등을 훈련목표로 하여 일꾼의 소명 및 사명감, 섬김의 원리, 그리고 교회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로 하였다. 금번 청지기훈련의 전체 강의를 김성관 위임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구 및 교회학교, 찬양대, 그리고 각 위원회의 일꾼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99년도의 힘찬 출발과 성숙한 섬김을 위한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 청지기 훈련 일정표 *

	1월 13일(수)	1월 14일(목)
저녁 7:00-8:00	전체강의 I '소명과 사명'	전체강의 II '섬김의 원리'
저녁 8:00-8:20	휴식(간식)	휴식(간식)
저녁 8:20-9:10	총련 5대 목표 강의 I	총련 5대 목표 강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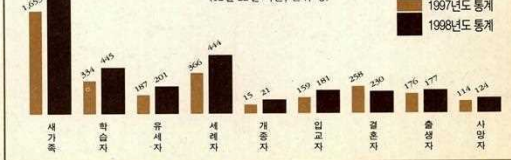
주목해 주십시오! 교회학교 시간 장소 1월 3일부터 바뀝니다

교육위원회 산하 및 부서들의 예배시간 및 장소가 99년 첫주일(1월 3일)부터 바뀝니다. 학생을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오없도록 주의해서 맞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별	구분	현 행	변 경
유년부	예배	1부 09:00-10:00 교 314호 2부 11:00-12:00	10:30-12:00(1회) 교 314호
초등부	예배	1부 09:00-10:00 교 307호 2부 11:00-12:00	10:30-12:00(1회) 교 307호
소년부	예배	1부 09:00-10:00 교 407호 2부 11:00-12:00	10:30-12:00(1회) 교 407호
중등1부	예배	10:30-12:20 교 414호	09:00-11:00 교 414호
중등2부	예배	10:30-12:20 교 507호	09:00-11:00 교 514호
중등3부	예배	10:30-12:20 교 514호	09:00-11:00 교 507호
청년1부	집회	10:20-14:00 마르다홀	11:00-14:20 교 507호

도표로 보는
1998년도 총련 통계
(12월 22일 기준, 단위 명)





김창인 목사

두 종류의 신자

(이사야 33:13-16)

“시온의 죄인들이 되지 말고, 참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세상에서는 복된 삶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 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돌로 나 누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신자와 간판만 가지고 있는 거짓 신자로 나누게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빌 3:18)

예배당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 면대 있는 자들이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이 나의 권능을 알라”(13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사람이 믿든 못 있든 가까운 곳에 있든 차이를 없애십니다. 태양 하나도 지구덩어리를 밝히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결코 거짓 신자는 되지 말고 참된 신자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1. 거짓 신자는 어떠한가

(1) 거짓 신자들은 두려워하며 몇 때가 올지 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14절)

강대국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쳐들어 올 때에 공포에 사로잡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앗수르에 보내어 화친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주면 철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 궁궐 안에 있는 보화뿐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까지 전부 모아가고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채워 앗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약속대로 가져 왔으니 이것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곧 돌아가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선물을 받고는 “그대 돌아가라” 하고는 유다의 사신들이 돌아간 다음에 변심하여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대성이 거느리는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 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앗수르의 나라의 땅에는 땅에 떨어지고, 물결은 배앗기고 군인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유다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

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약육강식을 하는 세상인지라 호랑이와 사자가 동물의 세계를 가득 메우고 토끼나 노루 같은 약한 동물들은 모두 잡혀 먹혀서 한 마리도 살아 남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토끼나 노루 같은 약한 동물은 잡혀 먹히면서도 그 수가 더 많아지고 호랑이나 사자 같은 강한 동물들의 수는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루살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루살렘 시민 가운데 ‘앗수르군과 싸우면 유다는 망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 전에 앗수르와 미리 뇌물을 하자’ 라며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4절에 나오는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이 시온의 죄인들은 앗수르군이 예루살렘을 해칠 처지에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도 은근히 마음으로 기뻐했고 어깨를 으쓱으쓱하며 기가양양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앗수르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롯판에 18만 5천 명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앗수르 왕 산헤립은 얼굴이 붉어져 도망쳐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당이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불행히도 신화의 칼에 목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온의 죄인들’은 겁이 났습니다. 사방에는 어려움, 우리들은 시온이 살아나는 날에 벌벌 떠는 시온의 죄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 거짓 신자의 생활은 경건치 아니합니다

“...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14절)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은 첫째로, 위 사람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위사람에 대하여 감사하여 대접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원망과 반역입니다.

둘째로, 나보다 약한 자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고,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약한 자를 밟아 주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먹으니 시온의 죄인들이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신분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신분이 있습니다.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집사면 집사, 목사면 목사의 신분이 있듯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교만하고 어려울 때에는 원수와 타협하고 자기의 죄는 숨겨두고 다른 사람에게는 깨를 거침서도 미안한 마음조차 없는 자는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는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시온의 죄인들이 있을까 하여 겁이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인악아 신아, 나를 가리워라” 하며 떨고 숨어야 한다면 그들은 거짓 신자요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여러 분 중에는 시온의 죄인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2. 참된 신자는 어떠한가

(1) 참된 신자의 생활이 어떠한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져오지 않는 자, 손을 흔들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괴롭히려는 죄는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15절)

첫째, 의롭게 행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해도 자기만은 의롭게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주와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열 사람이 그런 것을 하든지 백 사람이 못된 것을 하든지 ‘오직’ 나만이라도 의롭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세력을 따라 가지 않고 인정에 끌려 가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따라서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참된 신자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나 혼자라도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둘째, 정직하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손해를 나둔지 이가 나둔지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해관계에서 거짓말이 쉬이기가 쉽고 칭찬을 받으려고 조금 잘한 것은 부풀려 거짓말을 하기가 쉽

고 벌을 면하려고 잘못된 것을 축소하여 거짓말을 하기 쉽고 잘못을 핑계를 대면서 잘한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든 고 본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지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토색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토색’이란 정당한 착한 면서 세력을 이용하여 악의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의 5만 원을 빼앗는 것이 토색입니다. 신자들 중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뇌물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째,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장관이나 재판관이 되었을 때에 약한 자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면 그 뇌물을 가سو께 여겨 손을 흔들며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피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려는 피’란 남을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것을 못합니다.

섯째,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습니다. 이 말뜻은 높은 땅의 것을 흠모하는 눈으로 보면서 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높은 땅을 밟고 살면서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니다.

(2) 참 신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겠느니라”(16절)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원수가 손을 대지 못하고 참된 신자는 하나님에 좋은 것 항상 보급하여 주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고 참된 신자는 하나님에 생수를 대어 주시므로 답답한 일을 모르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됩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시온의 죄인들은 되지 말고, 참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세상에서는 복된 삶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겨울 단기선교

이번 겨울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수단팀은 다른 팀과는 달리 의료선교팀과 행정팀으로 나누어 현지의 필요를 채우고자 한다. 의사 3명, 간호사 1명, 약사 1명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현지에서 파송된 김영태 선교사와의 선교행정 도울 행정팀이 사역을 한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한 실제적인 현지파악도 하게 된다. 아프리카 대륙은 현재 모슬렐민이 북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키려 한다. 수단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 모슬렐민의 세력을 저지하는 아프리카의 복음의 덕택을 하려 한다. 수단팀은 이달 28일 귀국예정이다.

방글라데시팀은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역을 한다. 주로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방글라데시팀은 올 여름 다카 대학에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약 150명의 대학생들을 다키 만나 양육하며 후속 사역을 하려 한다. 현지인의 집에 민박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민박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여름에 가지 못한 치타공이라는 남쪽 해안 항구도시로 선교정탐도 계획하고 있다. 목요일과 주

일 찬양예배 후 모여 별개와와 현지를 돌고 기도하는 준비모임을 가지고 있다.

스리랑카팀은 2명씩 짝을 지어 우리 교회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출석하며 현지로 돌아간 현지인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주로 하는 사역을 하려 한다. 또한 지역 리더십을 통해 현지의 필요성과 문화를 살펴 앞으로 선교 방향에 지침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

인도팀은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사역을 한다. 넓은 인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편잡지역을 중심으로 슬럼가와 대학교를 위주로 개인전도와 정탐을 하려 한다. 또한 현지인 동행자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복음화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모임을 갖고 언어와 인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들 겨울 단기선교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에 복음의 불을 지펴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도전을 관상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한다. (이수경 기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미니(국내외국인선교부, 스리랑카인)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죄를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혈로 마귀의 능력을 멸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가난한 목자들을 부르셔서 그 영광에 함께 하시고 오늘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저희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 같은 영광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입대'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두 개의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두 연극의 조감독을 맡아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연극을 시작할 때는 부끄러운 마음에 서로 안하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 두 번 모아서 연습을 하는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도 기쁨의 빛을 비추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했을 때 목자역을 맡을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연습하는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된 프레미와 아수라에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 자원이여 목자 역을 하게끔 채워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2000여년 전 이 땅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연극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이 연극을 보는 다른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그 빛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일문

교회학교 교사지침

반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1천 4백명에 달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수룩과 기대감이 교차되는 날입니다. 지난 일년 동안 정들었던 교사들을 다음 학년도에 올려보내고 새로운 학생들을 맞습니다. 교사들은 예외없이 단단히 각오합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해야지!'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좀 막연한 듯 합니다. 말은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해야지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실천인데, 왜 실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답과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부여는 세로 맞는 제자들에게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반목회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략한 반목회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반목회 지침은 교사양성부강의 중 공과과 학습 시간 동안 진행된 '반목회 실제'(강영희, 중등1부 교사) 강의를 참조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 반목회의 실제 -

1. 새로 오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 그들은 '내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으로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도록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2. 구체적인 1년 동안의 반목회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일년동안 우리 반 학생들과 더불어 1)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기 2) 지각 안하기 3) 인사 잘하기 4) 성경일독하기 등을 꼭 실천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하십시오.
3. 반 학생들의 절적인 성장뿐 아니라,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목회에 열정을 쏟아붓게 된다. '현상 유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퇴보하게 된다.
4. 학생들과의 각별한 관계를 위해 매우 한 번 이상씩은 꼭 전화연락 하기를 하되, 가끔씩은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에게 전화하도록 유도하십시오.
5.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책망도 필요하지만 눈에 띄는 큰 성장의 변화는 항상 칭찬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것이 좋습니다.
6.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가족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큰 도움과 격려를 받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7. 문제학생(의)일수록 더 큰 사랑을 기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8. 학부모와의 가까운 연대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심방은 필수이고, 가끔씩 학생예배시간에 학부모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아!

윤 속 희(유년부 교사, 12교구 집사)

예들이! 너희들을 만난 지 꼭 1년 되는구나. 유년부에서 갖 올래와 여러동경에 하는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잊었던 2학년으로, 2학년 친구들은 초등부로 진급하게 되는구나.

사실, 처음 너희들과 예배드릴 때 선생님은 마음이 매우 조마조마 했었다. 그때는 너희들 중에 예배드릴 때 옆 사람과 싸우거나 기도 시간에 논조가 정난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거든. 너희들 '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 아니?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다. 예배시간에 귀를 쫓종 새우고 전도사님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찬송도 열심히, 헌금도 정성껏 드리는

려서부터 계속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20년 후에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겠다. 기탁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훌륭한 사람이 되

지. 너희들 전도해본 적 있나? 전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다. 유년부에는 남들이 알아 주지 않아도 묵묵히 전도하는 전도목공대 선생님이 계시다. 이 선생님들은 매주 토요일 학동초등학교와 논현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시고 계시. 이렇게 전도해온 친구들을 매주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신임반 선생님의 소고는 얼마나 큰지 모른다.

유년부가 새해에도 '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유년부, 기도하는 유년부, 전도하는 유년부' 가 되도록 기도하기로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하자.

예들이! 너희들 집에서 기도하니?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 밥먹을 때 한다면, 응. 그런 기분이야. 하루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다시말고 기도하니? 너희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꼭 기도해 보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고 마귀는 도망친다. 어

내 노래의 열매로 지난 1년 동안 300명의 새 친구들을 유년부로 초청하여 120명을 각반에 등반시킬 수 있었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구나! 예들이!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유년부가 새해에도 '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유년부, 기도하는 유년부, 전도하는 유년부' 가 되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나? 자,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하자.

내 게는 너무 예쁜 너희들, 정말 정말 사랑한다.



군전도회 세례식에 참석하고 주님의 새사람 됨을 축하합니다



새 생명의 빛같은
거울 나무가지에 꽃으로 피어나고
또다시 새색을 틔우기를 기도드린다.

주 훈련관 4층을 마치고 세례식에 참석한
병사들의 머리에서 새 생명의 생수가
가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됨을 축하드립니다" 하며 우리들은
은총 가슴에 십자가를 달아 주었다.
새 생명의 빛같은 거울 나무가지에 꽃
으로 피어나고 그 꽃들이 만개하여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시 새색을
띠우기를 기도하며 서로로 발걸음을 돌
렸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은
사와 재능을 개개인에게 주셨는데 그것
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주
님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선하
게 창조해 주신 보화다. 하나님은 소유
권과 인간의 관리 책임을 말씀하신다.
인간의 우지와 욕심과 타락으로 선하고
아름다웠던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 그리
스도인들은 만물을 타락과 죽음의 골짜
기에서 구출해내어 만물로 하여금 만일
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
야 할 의무가 있고, 이때에야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의 진실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찬양할 군부대를 다녀오면
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비니엘 조한단원종)

소망부 3년을 위한 소망의 기도

김 학 기(강로, 2교구)

사령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12
명의 소망부 3년 학생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그리스도 예
수님 안에서 사람이 넘치는 정다운
형제의 인연을 맺게 하여 주심을 감
사드립니다. 2천년 전에 주께서 12
명의 제자들을 골라 인도하심같이
저희들 12명을 부르시어 주님 안에
서 정다운 형제들로 맺어 주신 아버
지 하나님, 이제 저희 여생을 믿음
의 선배이며 국가와 민족의 원로이
고 가정과 사회의 어른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기에
쓸모있는 복은 도구의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마땅할 수 있도록 도
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를 끌고
두 손 모아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
화롭게 해드리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자 기쁨과 실행해 하
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한 하
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이 열매
를 더하여 저희의 후손들과 거래와
은 인류의 고귀하고 순수한 믿음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 육신이 강건치 못한
유기준과 한태영 두 형제의 머리 위
에 안수하시자 체내의 모든 독소들
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바삭 태워
무지개에 붙혀 주시어 날개처럼 날
아오시는 독수리의 새 힘과 기쁨 위
는 송아지의 즐거움 심령으로 주님
만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리하여 그들 주님의 모든 불신자들
이 어두운 감에서 깨어나 그들과 한
창하며 그들의 뒤를 따라 나신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성령님이여 어
만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시며 태초에 우주만을
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살아 계시며
이를 성취하시는 권능의 아버지 하
나님, 아버지께 의뢰하고 거룩한
관능과 사랑의 메아리가 온 우주 안
에 충만함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56억의 지상의 모든 인간
피조물의 영혼들이 한 마음 한 소
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가운데의 대창함이 있도록 저 미은
인류요나 불쌍히 여기시자 용서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거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한
없는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여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무위에
앉아 계시며 복한일 열매고 굿주린
형제 그리스도도 동보아 주시는 거래
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감사를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옵
나이다. 아멘!

드셔보세요, 예수 사랑 김치 "김장사랑(7)을 마치고"

전 현 신(연사, 3교구)



12월 10일 목요일,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기상대의 예보
에 옷을 든든히 챙기기는 우리 지역 식
구들은 보드도 당당히 교회 김장을 들
기 위해 지하실당으로 들어갔다. 이미
많은 충원의 일꾼들이 원근 각처에서
와서 후끈후끈한 열기를 내뿜으며 일하
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 아니 우리보다
먼 곳에서 왔을 분들이 많을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몽클었다.

조금 있으면 원로목사님께서 오셔서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과 기도를 해주
셨다. 이를 필두로 수시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랑의 격
려를 해주신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
어 다들고 셋고 옮기고 자르고 버무리
면서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였다.
이런 재미있는 집사님들 "우리는 담
장 밑에서 자다가 닭을 울어서 뛰어나
왔시유 ~" 하면서 우머김장을 발라하며
설레임이 최종을 폭소의 도가니로 만들
었고 또 이는 집사님들은 나눈 0교구에
숙한 것이 아니라 예수교구라고 확신한

(?) 예수님 자랑을 드러내 지나치시던
가난님께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
시니 부흥회가 따로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동안의 갈고 닦은 주부의 솜씨들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손으로 맛있는 김
치를 위하여, 일로는 그동안의 굶금
했던 소식이며 생활의 지혜를 위하여
일새임이 서로 사랑과 격려의 힘을
발랐다. 힘을 합하여 각자 맡은 일들
에 충실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
름다워 보였다.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
웠으리라! 이것은 단지 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어
우려져 예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
이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훈련
의 많은 식구들이 뜨끈한 국수를 먹을
때마다 세상에서의 강박하고 메달았던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가기를
기도해 본다.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과 시간과 여건
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져야만
한 믿음을 주시어 주신 것 잊게 하시니
함 감사합니다. 올 겨울의 김치는 짜지
도 싱겁지도 않은 '예수 사랑 김치'가
되어 얼마나 맛이 있을까 기대해 본다.

크리스마스 국밥 한 그릇

금 호 순(연사, 4교구)

수요부예배 후 당회장 목사님의 영
성훈련이 있기 전 마친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성경공부하였다는 광고가
있었다. 성경을 내려가 저 굶을 서서 국
밥 한 그릇을 받아먹고는, 약 40년 전 성
탄절에 국밥 얻어먹으려고 하얀밥을 꼬
마 새웠던 일이 주마보처럼 스쳐 지나
갔다. 성탄절 새벽교회가 교회 어른들이
만들어 주신 소고기국과 찜한 한 덩이는
임금들이 잘수신다 수라상도 부럽지 않

은 진미였다. 지금이요 흔한 게 소고기
국밥이지만 6·25가 활코간 이 땅
에는 가난이 범벅이 되어 소가 강와 신
고 지나간 흔적만 있어도 소고기국이었
다.

성탄날이 가까워지면 서양사람들이
입다라 보내준 크리스마스 선물과 선물
에 선물로 받은 얼마나 좋아했단! 1
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서나 먹이보
는 과자며 귀한 과일이 얼마나 끝맛이
있었던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시커먼 조개단 연기로 인해 쿠키명이며
얼굴 군데마다 새까맣게 솟검짐이 묻어
불상사나워도 50년대 나의 어린 시절은
가난에 찌들리면서조차 희망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잘 믿어 부
자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가난이 싫었
던지 마태복음 5장 14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 해 가
난이 복인가 고민하며 전도사님께 달려
가 여쭙고는 영성을 보기에 고이게 됐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책가방을 맨
채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좋은 옷
이고 고기국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에 무릎을 꿇고 무작정 기도했던 그
때. 이런 우리에게 사모가 있다면 뭐든
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가
하얗게졌던 지금 되돌아보니 어리시
절 나의 이기적인기 기분상당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였던 많은 육적
인 것들을 채워 주셨고, 이 땅의 것만 간
구하였던 국밥 한 그릇보다 더 좋은
영적인 풍성한것을 허락해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이
번 성탄절에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복남방에 들어가 줄주며 열매를 내
동포들께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를 소
망하며, 예수로 인해 정맥이 변화하 소
망이 되는 밝고 환한 날이 오기를 기도드
린다. 언제쯤일지 그 때를 알 수는 없
으나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말게 될 날이오리라 확신한다.
예수님, 다음 성탄절에는 저 언어불
은 동토에도 기쁜 소식이 있게 하소서!

은퇴이면서

20년 7개월의 은총

연제나 충현교회에는 말씀이 흥왕하였고
바른 복음이 전해져 왔기에,
큰 은혜를 입으셨던 건강 가운데
봉사는 은 것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김 방 진(장로, 8교구)

1969년 6월 5일은 제가 충현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날입니다. 그리고 1978년 5월 1일에는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제 20대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등록한 지 30여년, 장로로 임직된 지 20년 7개월이 훌쩍 지나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제부와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등에서 섬기게 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말씀과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게 주시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음성으로 저를 세력있게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급변해 20년 근속자로 포상을 받고 또한 원로장로로 추천당했다는 것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연제나 충현교회에는 말씀이 흥왕하였고 바른 복음이 전해져 왔기에, 큰 은혜를 입으셨던 건강 가운데 봉사는 은 것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지금한 마음으로 감사하리 따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적 교회를 좀 둘러볼 기회들도 있었으나 우리 교회만큼 말씀이 풍성한 교회도 드문 것을 잘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자부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되돌아보며 후배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과거의 순교적인 자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다짐하던 모습이 조금씩 희석되는 것은 어딘가에는 안타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충현의 성도들은 여전히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매우 온전하고 믿음으로 살려나 자제가 뚜렷하여 안심입니다. 앞으로 충현교회와 새로 사신 당회장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세우는 교회로 계속 자라갈 것을 굳게 믿으면서 주

님
께
다
시
한
번
은
을
감
사
를
드
림
니
다.

좌로부터 김방진, 강순웅, 하대선 장로

감사와 아쉬움의 시간들

강 순 웅(장로, 15교구)

은혜는 것이 시간이요 세월이라고는 하지만 몸된 교회를 변변치 못하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은퇴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인의 투포로 장로로 세움을 받은 것이 었는데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

나를 쓰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한편으로는 보다 더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했다는 회한과 아쉬움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교회들이 홀로하는 충현교회 장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었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돌 한 조각, 트랙의 풀 한 포기에도 사랑을 주고 정을 담으면서 주님의 전

을 받는 그 날까지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장로로 세움을 받으면서 늘 마음에 새겼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로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나, 장로로서 성도 상호간의 덕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 기록한 교공을 하여야 한다는 신앙적 임무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히려 거친 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령께서 지금 시무 중

을
사
도
했
던
저
의
마
음

하 대 선(장로, 10교구)

사랑의 빛만 지고

얼마 전 주간출판 편집실로부터 은퇴소식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았습니다. 남의 일로만 여겨지던 '은퇴'라는 낱말이 드디어 저에게도 해당되는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신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지난 1982년 10월에 안수받고 귀한 장로의 반열에 서게 된 것부터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장립 몇 개월만에 새생전을 위한 건축위원회의 회제로 임명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 거대한 교회건물의 건축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 염려하는 믿음 약한 저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에게 주실 용이요...' 하신 말씀대로 은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을 보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기억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사무공 봉사에 이르러가자 지난 16년의 세월 속의 어느 하루도 사물의 은혜없이 지낸 날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생전까지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위를 앞두고 감히 여러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이 위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속에 살면서, 여러 교역자님의 사랑은 물론 동료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의 빛만 지고 거룩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무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 지난 45년간은 물론 가운데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충현교회를 언제나 만나 보시며 아들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탐방 - 중언유아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기독교 정신을 심어



미는 아이와 믿지 않는 아이들 모두를 천국일꾼으로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충현유아원'(원장 김종구 장로, 지도 민경애 집사)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탁아의 요구를 수용하고 아울러 발달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들 교육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기독교 정신을 심어 양육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1990년에 설립되었다.

충현유아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는 30개월 되는 아이부터 만 5세의 아이까지이다. 현재 반은 3개의 반으로 30개월 되는 아이부터 1살까지의 반과 2살부터 3살 되는 반, 4살부터 5살 아이들인 반이 있다. 그리고 유치원생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오후반이 있다. 이 반은 유아원을 졸업한 아이들의 맞벌이 부모들을 위하여 오전에는 유치원에 갔다가 오후에 이곳에서 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주로 성경과 주기도문, 사도신경 쓰기를 한다. 그러면서 글씨 연습도 하고 말씀도 천천히 익힌다.

충현유아원의 아이들을 예수님을 믿은 어린이와 서로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이곳을 신학교로 여기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문교부 유치원 교육 과정과 기독교 교육에 입각하여 연령 정도에 따라(신체, 정서, 사회, 언어, 인지 발달 및 생활 습관의 훈련 중심)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

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하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이다.

아이들의 평소 하루를 대략 소개하면 오전에는 유아원에 와서 자유롭게 놀다가 아침 식사를 하고 소그룹으로 불꽃, 미술, 도서 등 자유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집단 활동으로 이야기 나누기나 게임, 노래 등을 한다. 그밖에 필요일 때는 필요애를 드리고 수요일에는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그후 점심 식사를 먹는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자유 놀이와 유희적 놀이를 한 후에 귀가를 한다. 하루 중의 아침과 점심의 식사와 오후에 있는 두 번의 간식은 영양사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유아원 학부모들의 회교를 보면 불교나 무교 등 50% 정도는 다른 종교이다. 그러나 2년 내지 3년 후면 90% 이상의 부모님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이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통해 교회에 친근해지는 장점과 교사들의 간절함 기도 때문이다. 이들의 기도 그대로 지금의 아이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함께할 아이들 모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들이 되고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을 얻길 희망한다. (글/ 박주영 기자)

시간이 지나면서 타종교 학부모 중
다수가 예수님 제자로 변화

지체들 소식

영아부
오직 자랑케 하시는 하나님

올해 52번째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아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전도사와 장로님, 선생님과 늘 함께해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아기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기들을 영아에서 유아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물 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기들이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입김임을 확신합니다. 영아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아기들이 어느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빛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 주길 기도드립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벌써 98년도가 다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년부에서는 금년에 223명이 수료하고 161명이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개군이 89명이나 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보시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유년부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99년도 유년부 파이팅! (정지훈 통신원)

초등부
모두모두 감사드려요!

98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초등부에 처음 올라와서 아주 초조하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커서 꼬마 숙녀와 신사가 되어 이제 초등부를 떠나지만 소년부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1년 동안 여러모로 보살피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잘 약속하며 봉사하셨던 65명의 초등부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9년에는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며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1부
마지막 분반공부

지난 주일 중등1부에서는 마지막 분반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날 때, 귀엽기만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선생님보다, 훌쩍 더 커버린 든든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네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었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헤어지는 섭섭함이 앞서는 이 시간 더욱 아름답게 성장한 천국인물들을 기뻐해 봅니다. (김영희 통신원)

청년2부

IMF맞았기?

청년2부는 의미있는 성탄절을 위해서 성탄 전야를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위한 밤으로 준비했다. 24일 밤 7시 30분에 서울역 총동원 전도를 위해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복사님, 교사님, 회원들 50여명이 모여서, 찬송과 기도과 찬양, 맛있는 김밥과 따뜻한 옷과 양말들과 노숙자 수백명의 얼어붙은 영혼과 육신을 위해 헌신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짧은 시간이나마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단지 일회적인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청년2부 회원들과 전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과 후원

이 필요함을 느꼈다. (백명자 통신원)

새가족부
찬송가부르기 대회

12월 둘째주일 지정곡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유곡은 성탄 찬송가 중 한곡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사를 암송하고 율동, 소품 등을 준비한 과정 자체가 찬양의 시작이었다. 우리를 위해 구주 오신 주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정성으로 여겨졌다. 어린이가 되어 결혼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힘쓰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찬양은 감명을 전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는 주일 사상식과 함께 특송을 하신 오명진 성도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당지 못하며 은혜의 눈물로 찬양하기를 회중에서도 눈물로 찬양이 울려 나온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찬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면, 이 찬양의 축제를 열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임통개 통신원)

7교구

남성도 4지역 구역예배

하루의 일을 마치고 쉬는 여운을 시간대 모이기에 힘쓰시는 남성도 4지역 구역예배를 열었습니다. 숨가쁘게 쫓은 '최명환 장로님'에겐 건전하게 되어 구역예배에 입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명제는 하남, 광주에서도 모이는 남침사님들의 믿음과 말씀 인도하시는 이성남 집사님의 준비하신 모습에 예수 믿기를 원한 바 소모임으로 무척 아름답게 되었다. 한 남성도들의 간증이 있었고 최 장로님의 마지막 말씀이 개었다. 특별한 4지역은 '지도자 양성, 모이는 훈련, 친목도모훈련'이라는 두

몇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구역이었다. 돌아오는 발견이 무척 가치있고 훈련교회의 앞날이 밝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15교구

어느 집사님의 고백

IMF재해에서 1년을 지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현실에 매여 영적인 일들을 이어가려는 것이 사치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한 가정도 꽤 있는 듯하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연연중 구역예배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영적인 구역에 가리워 가리워 빛이 바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성탄과 함께 보내면서 성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벌지려 함에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더욱 필요한 때를 깨닫게 되었다고 ○○ 구역은 많은 집사님이 마음을 털어놓았다. (한준식 통신원)

1999년도 위원회 일꾼

전도위원회

실행위원

이태식 배준식 박종현 정정길 한영숙 박윤석 장관숙 조 숙 영미숙
남녀전도부
연말의 희망 / 이형수, 부희강 / 만연숙
원미희 / 김윤성 정태두 권병희 문경희 이경현
홍숙희

재정위원회

재정위원

오규 황종호 박태문 김두원 박종현 김보현
이후준 전한태 박창식 고재승 박병태 송영주
강봉기 박남수 전계록 김경원 임순배 마옥선
이 철 이예재 마도원 이재국 조영철 송두섭
박재민 조종광 신동식 김용석 이상호 홍시도
김영택 김진옥

근속자 간증

15년 근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병 석(적사, 9교구)

어제 전 민수가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나귀도 활용되어 쓰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님께 사 바림에게 발락의 칭을 거절하도록 하였는데도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서 예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내셨다. 이러한 경험은 한 발람은 발라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다. 발람이 만약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발람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발람이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던 유혹에 넘어져서 다 기뻐하지 않았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특별한 체험을 한 경험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순종하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내가 천천교회에 등록한 것은 1977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속 속 길에서 오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병역을 마치고 교회로 정직히 돌아와 있을 때 군대 신우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형제들 권유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되었다. 벌써 직분을 받은 지 15년이 되었다니 한 일이 너무 적어 속구만 뿐이다. 항상 감사 드리는 것은 중하고 2학년신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지 못한 부모님과 형제들이 거쳐서만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주일날 국내외국인신도부에서 율목이며 말씀을 전하셨던 배대원 전도사님이 갑자기 생각났다. "건강으로 돈으로 명예로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고도 살아야만 정말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속 속 길에서 오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10년 근속

사울 왕의 교훈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임을 뒤흔게나마 깨닫는다.

고 지 현(적사, 1교구)



스물세살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큼 잠재의식 속에 늘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곧바로 실생활에 연결이 잘 안될 때 성도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 성령을 잃어야 하는 데 그것이 잘 안된다. 읽더라도 머리 속은 세상일로 가득하다. 그러니 기도가 모래알 같은 것처럼 중언부언하게 되고 믿음의 생활이 수박 겉핥기 식에 그치게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이러했다. 그런데 이런 괴로운 신앙 생활에서 나를 탈출시켜 준 순경말씀이 있다. 그것은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부터는 하나님과 백성들과 사무엘로부터 멀어져 갔다. 문제는 사울 왕이 그 뒤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부터 신자로부터도 대담을 듣지 못했다. 사울은 그런 대로 간재하며 아내들도 간재하고 도사문화생활을 하며 세 가지 바를 수 있으니 부랴부랴게 벌로 얻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재하게 나올 수 있었지만 이는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임을 뒤흔게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의 침략 속에 사무엘 신자들을 다시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모든 인간적인 교만을 버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영혼의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사울 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 회 소 식

● 알 림

1. 특별제직회 / 오는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안건: 98년도 결산 및 99년도 예산안 심의
2. 원로주대식 · 은퇴식: 장기근속자 포상식 / 오는 찬양예배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16:30까지 본당 강대상 앞 지정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 신년감사예배 안내 / 1월 1일(금) 1부 09:00, 2부 11:00 본당에서 드리며, 신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날 금요집회는 없습니다.
4. 성찬식 안내 / 1월 3일(다음 주일) I, II, III, IV, V 부 예배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체의 안내 / 1월 3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6. 1월 3일(다음 주일) 주간총회 광고 접수 오늘 마감 / 1월 1일(금) 신성유일 관계로 광고 접수를 오늘까지 접수합니다.
7. 학원전도회 겨울순회회 / 1월 5일(화) 08:00 순회교회에서 실시합니다.

● 장 모

1. 장모 화요세백기도회 / 20일(화) 세백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요세백기도회 / 28일(월) 세백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오는 15:00-16:30, 갈릴릴룸
4. 교구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당회실
5. 남녀노부 각 교구 연합회, 장모집 모임 / 29일(화) 18:00, 칼빈홀
6.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31일(목) 세백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 1999년 1월 주일 및 수요 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모)					찬양 예배 (안수집사)		수요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I	II
1	3	박인건	이종석	임두원	김여송	손경수	장철환	김종순	김호순	
	10	이종섭	이인상	최명환	이병욱	이하영	김승곤	정경자	박효지	
	17	전홍용	황영일	손 철	김단용	임기재	김지주	이순자	왕진숙	
	24	한진채	이갑재	전홍렬	정정주	한승규	고승균	유금열	이미혜	
	31	김광남	김기하	이정우	최성현	김영수	이성호	김진우	이은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918	김영곤	1	백도부	김예경(13)	1926	장경근	10	예배과	김정근(5)
1919	강성수	2	소망부	이정숙(2)	1927	김상일	11	청년1부	
1920	이영희	4	청년2부		1928	허경미	11	청년1부	
1921	송혜연	4	푸디아		1929	송문철	11	바울	서영자(16)
1922	박두래	8	청년1부	박영순(8)	1930	박문순	11	에스터	서영자(16)
1923	임홍성	7	베드로	금옥연(7)	1931	박현영	12	청년1부	백옥심(12)
1924	강현희	7	푸디아	금옥연(7)	1932	주홍호	15	청년2부	
1925	이순훈	7	중동부	금옥연(7)	1933	유정미	19	대학부	구자현(16)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총회 응답의 창

◆ 많은 경우, 우리들은 기도를 하고 나서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데도, 우리들은 그저 막연하게 지나치곤 합니다. 신앙생활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어달 동안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기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창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살펴봅시다.

◆ 지난 10월 이후로 겨울단기성교를 위한 기도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화)에는 수단의료선교단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현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도들의 꾸준한 기도와 더불어 매주 수요일이 진행되었던 지역장 부지역장 훈련과 남성교구역장 훈련, 그리고 매주 화, 수, 목 삼일에 걸쳐

진행되던 주간성경공부가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찍이 지난 10월부터 12월 5일 저녁에 진행된 성탄축하 메시아 합창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큰 은혜와 넘치는 감격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99년도를 위한 인사 및 조직개편, 각 부서의 일꾼 임명이 잘 마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음 안에서 하나되게 해달라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당회가 하나가 되고, 교역자들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지난 1년이 다 가도록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 교회준공 소위원회 회의 / 오는 15:00, 사무국
8. 권사의 제4회 월례회 / 30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결 혼

1. 마중죽군(마도원 안수집사, 최선자 권사의 아들, 제9교구)과 강현종양(강세원 집사, 김미화 집사의 딸) / 29일(화) 12:30 갈릴릴룸
2. 김대웅군(김영명 집사, 김소선 권사의 아들, 제9교구)과 임정아양(임이랑 성도, 신순과 권사의 딸) / 29일(화) 14:30 갈릴릴룸

● 별 세

1. 임영섭 집사(김성숙 성도 남편, 제5교구 일원2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 주 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조영해 집사 / 서울 구로구 신도빌딩 우성3차A, 301-402, 전화: 676-7490, 직장전화: 634-8246

◆ 주일오후기도회 찬양봉사자 모집

- 음악에 재능있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3-4대 성도님을 중 반주와 찬양 인도자로 봉사할 성도들을 찾습니다.
- 문의: 실업인전도회(교육관 112호, 구내전화 448)

◆ 총회복지관 우리누리 겨울캠프 자원봉사자 모집

- 대상: 중, 고등부 학생 20명(신학선)
- 일시: 99월 1월 5일(화)~1월 7일(목) 2박 3일 캠프
- 접수 및 문의처: 565-7564

총회 중보의 창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원목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다음 주일)을 준비하면서 버려야 할 죄를 버리고 바른 신앙생활 할 것을 결심하게 하소서.

③ 12월 22일부터 28일에 걸쳐 진행되는 수단 단기의료선교를 통해 수단의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사랑과 복음으로 돌보아지게 하소서.

④ 주님의 뜻을 아람담게 이루는 특별제직회와 공동체의회가 되게 하소서.

⑤ 원로주대식 은퇴 · 장기근속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더욱 영광간에 강건한 가운데 끝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⑥ 1999년도 신년감사예배를 통해 한 해에도 순전하게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 한결 같은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⑦ 1999년 1월 13일~14일에 있을 청지기헌련을 통해 새 연약의 일꾼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⑧ 우은 날씨로 인해 더욱 고통당한 이웃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소서.

⑨ 1999년 2월 3일~6일까지 있을 제2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더욱 빛나는 영혼의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1월 3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소프라노 김희숙

(찬양곡목)

- 아침 해가 들을 때
- 내 주님 임으신 그 웃음
- 내 진정 사모하는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축광할 수 없는 그 사랑

◆ 3부예배

바이올린 이수철

(찬양곡목)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축복 · 너 성결기 위해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4부예배

바이올린 김유정

(찬양곡목)

- 나의 영원하신 기업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나 행한 것으로

◆ 5부예배

소프라노 박현주

(찬양곡목)

- 거룩한 주님께 · 피난처 있으니
-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였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원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

김필수